

사생활 등 권리와 관련하여 본지 보도로 상해를 초래하지 않음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동 IC 구간 광복 동행도 관동
 (당일 출퇴근 IC 영수증 반환제 실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 320-7700

◀ 최희섭-이재주 ▶

돌아온 거포들
불꽃打 팡! 팡!
4강 추격 활력



아 올렸다.
 지난 15일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 두 달만에 복귀 전을 치른 최희섭은 첫 타석에서 1회 2사2루에서 결승타를 때려내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지만 이후 9타석에 들어서 한번도 1루를 밟지 못하고, 삼진은 4개를 당했다. 이중 2개의 삼진은 대타로 나와 당한 것이

도 절정의 타격감으로 해 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최희섭과 함께 1군에 돌아온 이재주는 지난 15일 복귀 이후 19일 현재 타율이 0.500, 벌책 5타점을 기록했다.

돌아온 두 거포, 팀 4강의 중심에 선다.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4위 자리를 놓고 숨막힌 3파전을 펼치고 있다. 그날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는 박빙의 승부처에 서있는 KIA는 두 거포 최희섭·이재주의 부활 조짐으로 4강 추격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19일 두산전 5타점 합작

최-화끈한 투런포 쏘아 올려

이-복귀 후 타율 0.500, 5타점

지난 18일 노장 이종범의 원맨쇼로 가까스로 두산의 10연승을 저지했던 KIA는 19일에는 5타점을 합작한 최희섭·이재주의 타격쇼로 이를 연속 1점차 승리를 거뒀다. 초반 기선을 제압한 것은 '빅쇼이' 최희섭의 한 방이었다. 1회 2사 1루, 최희섭은 두산 선발 김명제의 직구를 받아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비거리 120m짜리 투런포를 쏘

었다.
 19일 경기 전 선수들의 타격훈련을 지켜보던 조범현 감독은 최희섭에게 직접 타구 방향을 지시하며 타격감을 점검한 뒤 4번 자리에 최희섭을 배치했고 작전은 성공했다. 지난달 26일 컨디션 난조로 2군으로 내려갔던 이재주는

이재주는 19일 두산전에서 2-2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던 3회말 초구를 공략, 우중간 펜스를 맞추는 큼직한 2루타로 2루주자 이종범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역전의 용사 이재주는 5회 2사 1-2루에서도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2루타를 터트리며 타점 2개를 추가했다. 이날 이재주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3개의 공으로 3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팀 2연승의 수훈감이 됐다.

원조 거포 최희섭·이재주의 컨디션에 따라 1-2군을 오르내리던 차세대 거포 김주형·나지완도 1군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팀 타선에 부족 힘이 붙었다.

7월 프로야구 판도 변화를 위해 새로 꾸려진 장성호-최희섭-이재주의 KIA 클린업 트리오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위성미 실격 “으악”

스코어 카드 사인 안하고 대회장 벗어나

2위까지 갔는데...조직원 통보 받고 울먹

LPGA 스테이트팜 클래식 3R

부활의 샷을 날리던 '천재소녀' 위성미 (19·미국 이슬 미셸 위)가 규정대로 스코어 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격 처리됐다.

위성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크릭 골프장(파72·6천60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팜 클래식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중간합계 17언더파 199타로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2라운드 경기 끝난 뒤 스코어카드를 제출하는 장소를 벗어 나다가 돌아와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회 조직위원회는 위성미를 실격처리했다.

위성미는 19일 2라운드를 마친 뒤 스코어

카드를 제출했지만 사인을 하지 않고 떠났다. 스코어카드를 받은 자원봉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뒤따라가 위성미에게 알려줬고 위성미는 다시 돌아와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수 위터스 LPGA 경기위원은 "3라운드가 끝난 뒤 위성미와 캐디를 불러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원들의 실수도 있었지만 선수가 사인을 하지 않고 대회장을 벗어난 것은 실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경기장을 떠났던 위성미는 조직위원회에 연락을 받고 돌아와 실격 통보를 받은 뒤 "이유를 모르겠다. (뒤늦게 사인을 했지만)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충렬된 눈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위성미는 "보통 스코어카드에 사인부터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성미가 실격을 당한 뒤 청야니(대만)가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선두를 달렸고



미셸 위가 20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크릭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팜 클래식 3라운드에서 규정대로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격 처리된 후 기자회견장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희원(30·휠라코리아)과 오지영(20·에머슨스퍼시픽)이 15언더파 201타로 공동 3위에서 선두를 추격했다.

특히 한희원은 하루동안 보기없이 버디 11개를 쓸어 담는 불꽃타를 휘두르며 자신의 최소타 기록이자 대회 최저타 기록을 경

신했다.
 청야니와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나연(21·SK텔레콤)은 전반에 1타를 잃었지만 후반에 버디 2개, 이글 1개를 적어내며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올림픽 축구 한국과 한 조

온두라스 베일 벗는다

새 '피겨요정' 김나영 환상의 연기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스타 '08슈퍼스타 온 아이스(Superstars on Ice)'에서 김나영이 환상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K-리그 인천과 친선 경기

한국의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조별리그 상대인 온두라스가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친선경기를 위해 21일 방한한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기념으로 25일 오후 7시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과 친선경기를 갖는 온두라스 올림픽 대표팀은 전지훈련을 해 온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질베르토 이어두드 감독이 이끄는 온두라스 대표팀은 코칭스태프 및 관계자 12명과 선수 18명으로 구성됐다. 24세 이상 와일드카드도 올림픽 최종엔트리에 뽑힌 공

격수 카를로스 파본(레알 에스파냐)도 이번 방한 멤버에 포함됐다. 인천 구단에 따르면 온두라스의 와일드카드 세 명 중 중국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사무엘 카바에로(창춘 야타이)와 미드필더 에밀 마르티네스(베이징 귀안)는 소속팀과 대표팀 합류 여부를 조울 중이다.

온두라스 대표팀은 문학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과 인천구단 승기 연습구장에서 훈련하고, 친선경기를 치른 뒤 27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박성화호는 온두라스와 다음달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베이징을 리픽 조별리그 D조 3차전을 갖는다.

온두라스는 지난 13일 파테말라 A대표팀과 친선경기에서 3-3으로 비겼고, 16일 미국 프로축구(MLS)의 약체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와 평가전에서는 0-4로 완패했다.

추신수 2점포 등 3안타

팀 승리 결정적 기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점 홈런을 포함 3안타를 몰아치며 팀 승리

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워싱턴 주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한 경기에서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1회초 2사1루에서 시애틀 투수 미겔 바티스타의 2구째를 잡아당겨 우익수 관중석 깊은 곳에 떨어지는 투런포를 때려냈다.

“다치지 않는 게 최대의 목표”

‘맨유’ 박지성 어제 출국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8-2009 시즌 준비를 위해 20일 출국했다.

이날 낮 1시30분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떠난 박지성은 “다음 시즌에는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24세 이상 선수) 0순위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박지성은 “어렸을 때부터 프로에서 뛰어온 젊은 선수 뿐만 아니라 와일드카드도 기량이 좋아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응원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

-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된 것이 있나.

▲ 일단 영국에 도착하면 오른쪽 무릎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훈련 여부나 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돌아와야 정확한 일정을 알게 될 것 같다. 특히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하고 있는 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말해달라.

▲ 벌써 4번째로 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게 됐다. 좋은 모습 보여주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부상없이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 치열한 주전 경쟁을 또 해야 한다.

▲ 주전 경쟁은 매년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내가 운동장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 기회는 1년 동안 많이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지가 중요하다.

▲ 올림픽 대표팀에 응원을 보낸다.

▲ 현재 대표팀에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축이 된 플레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를 팀들이 쉽지 않지만 충분히 경쟁이 가능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